

본당 소식

2024년 10월 교황님 기도지향 : '공동 사명'

교회가 사제, 수도자, 평신도의 참여와 친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면서 공동책임성의 표지인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나가도록 기도합니다.

- ♣ - 미사 전,후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 성가대쪽 출입문을 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의실은 전례위원, 그날 복사 외 출입 불가)
- 미사 후, 성전 내 소등에 다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오라토리오를 밀라노 교구 이민자국의 요청과 산고타르도 성당의 협조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음을 늘 유념하도록 합시다.

♣ 모임/회의

- 청년구역: 금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사목회의: 다음 주일 미사 후, 오라토리오
- 청년성서모임: 다음 주일 미사 후, 사제관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변의용 베네딕토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04,30€ • 교무금 300,00€

전례 성가

입당 :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때)

봉헌 : 210 (나의 생명 드리니)

성체 :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80 (주님의 작은 그릇)

파견 :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전례 봉사

이번 주일(10월 6일)	다음 주일(10월 13일)
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1독서: 안희관 요셉
2독서: 구희선 스텔라	2독서: 현상휘 루치아
복 사: 변가인 헬레나, 김사빈 엠마	복 사: 강윤이 스텔라, 안태리 소화데레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2024년 10월 6일 (녹) 연중 제27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 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1독서 (창세기 2,18-24)

18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19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20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21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22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23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24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제2독서 (히브리서 2,9-11)

형제 여러분, 9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10 만물은 하느님을 위하여 또 그분을 통하여 존재합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들이시면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영도자를
 고난으로 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11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는 분이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냐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복음 (마르코 10,2-12)

그때에 2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4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5 그러자 예수님께서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6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7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8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9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10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11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
 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12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 안에서 참여와 친
 교와 공동 사명을 증진하며 시노달리타스의 생활 방식을 모든 면에서 지켜 나가게
 하소서.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가까워진 지구촌을 굽어살피시어, 지
 구촌 많은 이가 다른 이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함께하여 주님의 평
 화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3. 생명 조작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인간 생명인 배아가 난임의 대안으로 쓰이지 않게 하시며,
 저희가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소중함을 널리 전하여 생명 문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4. 밀라노 한인성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저희 밀라노 한인성당 공동체를 주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시어, 희망
 찬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 힘쓰게 하
 소서.
-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